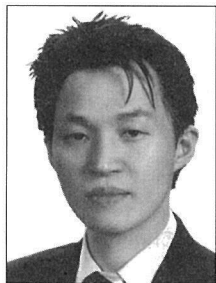


# 곡물가 폭등시대



배정식  
본회 지도부장

국제곡물값 조짐이 심상찮다. 세계적인 가뭄과 폭염으로 작황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곡물값 폭등기조는 향후 10년간 지속될 거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상기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예견하면서도 뭐든지 닦쳐야 깨달게 되는 것이 인간 본성인지 모른다. 더 무서운 얘기도 있다. 과학자들은 자기 북극이 이동한다고 한다. 극지가 이동하면 최대곡물 생산지인 동남아를 포함해 아프리카가 침수된다고 한다. 얼마 전 태국 수도 방콕이 물에 잠겼었다. 아직 위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위험을 예견하기에는 충분하다.

문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편이 적다는데 있다. 이번에 닦친 이상기후로 인해 사료가격과 조사료값의 급등은 1차적으로 고스란히 축산농민, 낙농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사료가격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7.3일 김영록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대표발의한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사료업체는 미온적이고,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비율 30%(사료업체 30%, 정부 40%)에 대한 여론수렴도 되지 않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조사료 수급문제도 난제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와 같은 수입국이 증가로 공급량을 줄고 수요량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19일 축산신문 주관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료 수급방안 토론회(부제:수입조사료 쿼터 문제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취약한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중요한 문제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국내 자급조사료 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수입조사료 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는 국내산 조사료 품질관리가 우선이지, 국내 조사료 생산량, 자급율 수치나 통계가 아니다. 경종농가들 입장에서선 조사료 생산으로 수익이 난다면 당연히 재배가 늘어날 것이고, 축산농가들은 수입조사료와 비교하여 균일한 품질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이용이 확대될 것이다. 정말 말 그대로 획기적이고 직접적인 방안마련이 아쉽다.

지난해 우유, 유제품 1인당 소비량은 70.7kg로 사상 처음 70kg을 넘어섰다. 구제역으로 인한 우유부족을 틈타 들어온 수입유제품 할당관세의 위력이 더해져서다. 반면 쌀은 71.2kg로 곧 우유가 1위 자리를 넘볼 기세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내 우유자급율은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급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곡물가 폭등으로 사료값 인상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사료값 폭등에 더해 조사료값 폭등도 초읽기다. FTA 파고와 사료값폭등, 국산우유 자급율하락은 국내 낙농업의 위기다. 이러한 때에 국내 낙농업의 안정적인 기반유지를 위한 방편을 세우지 못한다면 제1식량을 넘보는 우유는 역설적으로 수입유제품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가 폭등시대. 이는 직접적으로 농축산업, 낙농업의 위기와 직결된다. 그러나 세상은 온통 물가걱정뿐 농축산업에 대해 사실 별 관심이 없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정책도 늘 속 빈 정책뿐이다. 곡물가 폭등시대,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고민이 앞선다. ☹

